

지역 소식통

정읍시, 14억5000만원 투입

경로당 362곳 새 단장

정읍시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총 14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경로당 362개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개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경로당의 환경을 개선해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경로당 신축 1개소 △노후 정도와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개보수 대상 182개소 △에어컨, TV, 냉장고 등 주요 가전제품과 비품의 기능 보강이 필요한 179곳 등 총 362곳이다.

특히 시는 어르신들의 이용률이 높은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를 위해 읍·면·동 단위의 수요 조사와 현장 확인 과정을 거쳐 최종 사업 대상지를 확정했다.

시는 사업 추진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현장 확인을 강화하고 공사 진행 상황 점검하는 등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소방서, 블랙아이스

위험성·예방 수칙 홍보

겨울철 기온 하강과 함께 도로 결빙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블랙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진입할 경우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고창소방서(서장 이경승)는 군민들의 안전한 겨울철 운전을 위해 블랙아이스 위험성과 예방 수칙을 알리며 주의를 당부했다.

고창소방서에 따르면 겨울철 교통사고 중 상당수가 블랙아이스 구간에서 발생하며, 미끄러짐으로 인한 연쇄 추돌 사고로 확대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고창소방서는 겨울철 안전운전을 위해 평소보다 20~30% 이상 감속 운행, 충분한 차간 거리 확보, 급가속·급제동·급조향 등 급작스러운 운전 행위 자제 등을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어르신 돌봄 서비스 공백 채운다

정읍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체계 구축... 자택서 노후생활 영위 지원 '중점'

정읍시가 어르신들이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5억9,000만원을 투입해 '의료·요양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지난 20일 탐가정의학과 의원 등 9개 협약기관과 실무 간담회를 갖고, 오는 3월 전국 시행에 앞서 빈틈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에 발맞춰 시가 개발한 지역특화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탐가정의학과의원 △화평한의원 △정읍시 물리치료사회 △정읍주거복지센터 △다솜재가복지센터 △정읍시니어클럽 △정읍시립요양병원 △정읍아산병원 △정

읍시노인복지관 등 9개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무자가 참석했다. 시는 올해 기존 국가 돌봄 서비스가 채우지 못하는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비 5억9,000만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보건 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주거 등 4개 분야에서 총 9종의 지역특화서비스를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이는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평생 살던 자택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양방과 한방을 아우르는 방문 의료, 방문 건강 운동,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틈새 요양 돌봄, 건강 맞춤형 영양 식사, 안심 주거환경 개선, 방문 목욕 등이

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각 기관의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계획을 발표하고, 대상자별 특이사항과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나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데 집중했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Aging In Place)하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따뜻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협약 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실무 간담회를 통해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특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대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8개월간의 긴 협상 끝에 노사 상생을 위한 합의점을 찾았다.

8개월에 걸친 줄다리기를 끝 '상생 합의'

정읍시-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 '상생과 협력 약속'

정읍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8개월간의 긴 협상 끝에 노사 상생을 위한 합의점을 찾았다. 시는 21일 시청 시청실에서 2025년 공무원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근로 조건 개선과 복지 향상 등을 통해 대시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5월 1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권로)의 단체교섭 요구로 시작됐다.

이후 양측은 약 8개월 동안 총 9차례의 실무교섭과 2차례의 본교섭을 진행하며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공무원 근로자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근무 환경 개선에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 활동 여건 개선 △장기 재직 휴가 대상 기간 확대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 확

대 등이 포함됐다. 이는 근로자들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시는 이번 노사 합의가 공무원 근로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내부 만족도 향상이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와 업무 효율성 증대로 이어져,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공무원 근로자는 시정의 동반자로서 청소, 환경 등 곳곳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노·사 협력 및 상생을 전제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부군수, 공공건축물 건립 주요 현장 점검

관내 10개 공공건축물 사업장 대상, 안전관리·추진 상황 점검

부안군은 정화영 부군수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재무과에서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현장 10개소를 방문해 각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현장의 문제 해결과 개선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점검 첫날에는 변산면 청사 건립, 학교복합시설(변산돌봄문화센터) 건립,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센터, 변산 아동·청소년 스포츠 체험센터 조성, 부안빌

재향학교 건립사업 현장을 방문해 이용객들의 편의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관련 부서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둘째 날에는 진서면사무소 신축, 부안농공단지 임대형 기숙사 건립, 온가족센터 주차장 건립, 행안면 복합청사 건립,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건립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철저하고 안전한 공정관리를 마무리해 빠른 시일 내 시설을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 거점시설 상생협력상가 입주자 모집

부안어울림센터 1층 카페 1곳·창업플랫폼 1동 1호... 입찰 접수 내달 3일 오후 4시까지 가능

부안군은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 내 상생협력상가 2개소의 입주자를 공개입찰 방식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상생협력상가는 부안어울림센터 1층 카페 1개소와 창업플랫폼 1동 1호로 입찰 접수는 오는 2월 3일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또 오는 30일에는 현장 설명회를 개최해 시설 현황 등 입찰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입찰은 행정안전부 지정 정보처리장치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전자입찰 방

식으로 진행되며 사용료는 최고가 낙찰을 통해 산정된다.

연간 기준 임대료는 점포 낙찰 금액에 따라 달라지고 2년 차부터는 최초 임대료에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한다.

입주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협의에 따라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입찰 참가 자격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군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개인 및 단체, 법인이다.

모집 업종은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법정계획)에 따라 어울림

정화영 부군수는 "공공건축물은 우리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만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군의 다양한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주요 공공건축물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건의사항 등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총력전

9억원 예산 투입·4월 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

고창군이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제 사업에 총력을 펼친다. 사업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활동 시기 이전인 4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나무 조직 내에 재선충을 옮겨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병이다. 한번 감염되면 회복이 불가능해 조기 발견과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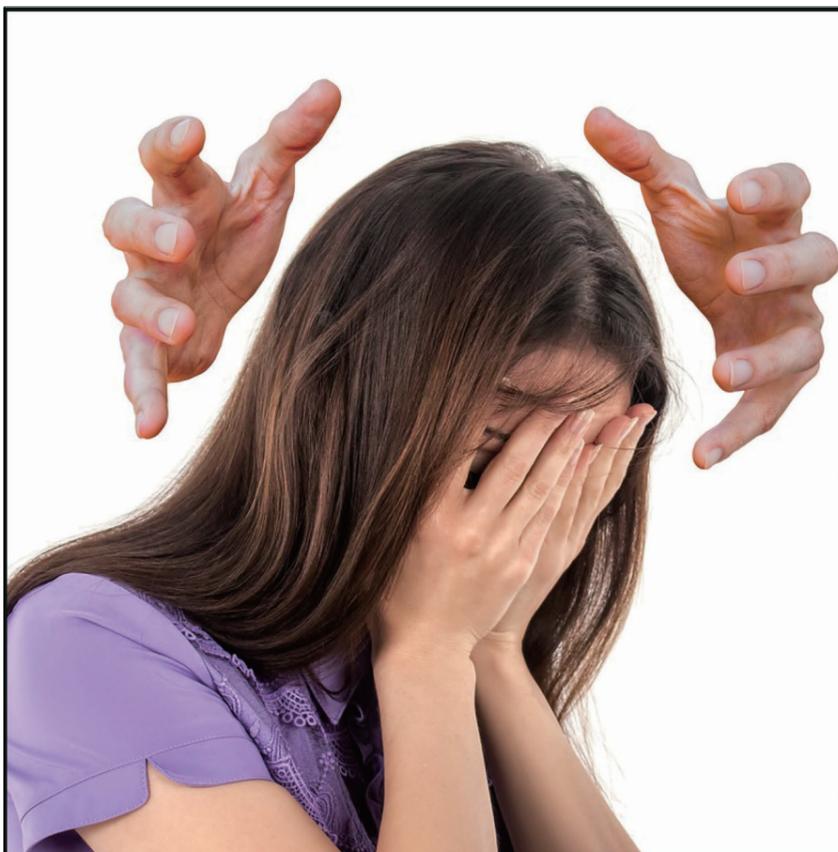
이에 군은 관내 반출 금지구역 8개 읍·면(1만1800ha)을 중심으로 매개충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인 4월 말까지를 '집중 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에 돌입한다. 우선 경관적 가치가 높은 주요 가로수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과 감염 우려목을 모두 베고, 병해충 저항성이 강한 활엽수로 바꾼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방제비용을 절감하고 기후변화에도 강한 숲을 조성할 수 있는 수종 전환 방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방제 예산을 가동해 산림인접 지역과 가시권 외곽 지역의 예방을 강화한다.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